

화려함보다는 충실함을 더 높이 평가하고, 선풍적인 책보다는 꾸준히 읽히는 책을 선호하는 독일 출판계가 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출판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시작됐다. 서점과 출판사의 연합체인 독일서적상협회는 2000년 가을, 2010년까지 독자의 수가 3분의 1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이유는 독일 사회의 노령화. 주 독자층인 30~40대의 감소가 제일 걱정거리다. 그전까지 매년 1.5%씩 증가하던 매출액의 목표는 0.6%로 하향조정됐다.

독일 독서계에 부는 '해리 포터' 열풍

하지만 협회의 걱정과는 달리 출판사들과 서점들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전자책이나 시디롬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독자층을 일깨우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무려 2.1%나 증가했다. 이것은 1년 전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 작년 한해 동안 초판을 찍은 책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8만3천여 종, 약 5억6520만권에 이른다. 서점의 총매출액은 184억마르크, 우리 돈으로 약 10조3천억원에 달했다.

마치 프랑스 갈리마르출판사의 책들처럼 아무런 특징도 없는 표지를 사용하던 전통적인 출판사들이 영미권이나 한국처럼 눈에 띄는 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특정상품을 중점적으로 강조해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다시 책으로 이끌어낸 <해리 포터> 시리즈가 인기를 끌자 다른 출판사에서 '해리 포터 백과사전' '해리 포터 문제집' 그리고 '해리 포터 영독 사전' 등을 개발했으며, <해리 포터>를 번역 출판한 칼젠사는 다른 출판사가 낸 해리 포터 관련서적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해리 포터 문제집' 과 '백과사전' 은 해리 포터 독자층을 성인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리 포터 독자를 위한 영독사전은 해리 포터 영어판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서 독일에 때아닌 영어 독서 붐을 가져오기도 했다. 또 해리

출판시장의 먹구름 걷어낼 묘안 찾기에 고심하는 독일 출판계

이탈하는 독자 막기 위해 전략적 마케팅 구사해

이정보 | 유로코리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

포터 관련 서적은 다시 아직 제5권이 출간되지 않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지속적인 판매를 담보해 이 시리즈가 아직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남게 했다.

대중의 관심 이끌어낼 문학상 마케팅

한편 독일서적상협회는 오스카상 시상식과 같은 화려한 쇼를 기획하고 있다. 오스카상이 영화시장을 확대하듯, TV로 중계하는 화려한 잔치를 통해 독자층을 넓히겠다는 것이 그의 도다. 이미 독일에는 750개의 문학상이 존재한다. 하루에 두개 이상의 문학상이 수여되고 있는 꼴이다. 이 문학상은 작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 독일서적상협회는 이전에 독일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상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상금도 파격적으로 7개 분야에 1백만 마르크 이상으로 책정해 최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은근히 존재

심지란 이유로 뭉뚱을 밀고 있다. 양측은 여차하면 각자 자기가 좋은 곳에서 시상식을 열기세다.

하지만 지역감정 때문에 도서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서적상협회와 출판사의 의도가 좌절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먼저 독일 랜덤하우스는 시상식이 양쪽 도시로 분열될 경우 지원하기로 한 13만 마르크를 철회하겠다고 나섰고 여기에 홀츠브링크 출판그룹과 라벤스부르거 재단이 동조하고 있다. 서적상협회는 양측 그 누구도 패배감을 갖지 않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새로운 마케팅과 센세이션은 당장은 출판시장의 먹구름을 걷어줄 것 같다. 하지만 서서히 독일 책만의 품격은 사라질 것 같은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혹시 아는가? 독일 변증법의 전통에 따라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호랑이를 요리할지... ■

하는 동서의 지역감정이 바로 그것. 구 동독의 전통적인 출판사인 아우프바우와 베를린출판사가 매년 봄 국내 시장을 위한 북메세가 열리고 있는 라이프치히를 시상식장으로 미는 데 반해, 대표적인 출판미디어 재벌인 베텔스만은 미디어와 문화의 중



앞으로 독일 출판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몇몇 출판사들은 새로운 독자 창출로 매출액이 신장되기도 했다. 도표는 최근 10년간 독일의 신간발행 추이.